전북문화관광재단, 고객 눈높이 맞춘 홍보 매체 운영 '큰 호응'

도내 문화관광 정보 'SNS로 충분해'

SNS 채널 성격 따라 컨셉 차별화
고객 의견 반영 위해 FAQ 등 운영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사람들이 정보를 취하는 방식 또한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공기관의 경우 홍보 매체가 홈페이지·블로그 정도였다면, 최근 들어서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영역으로 확대하는 추세다.

이에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기전, 이하 재단)도 운영 3기 포용적 지역문화정책을 표방하고 적극적 온라인 홍보 활동에 나섰다. 예술인은 물론 도민들의 문화예술·재단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단에 대한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다.

다양한 SNS 홍보 매체 운영은 물론 채널별 주요 이용객을 고려한 눈높이 홍보 전략을 수립, 지역 문화예술 및 문화관광에 대한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흥미와 재미까지 더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NS 채널별 특색을 살린 차별적 운영으로 큰 호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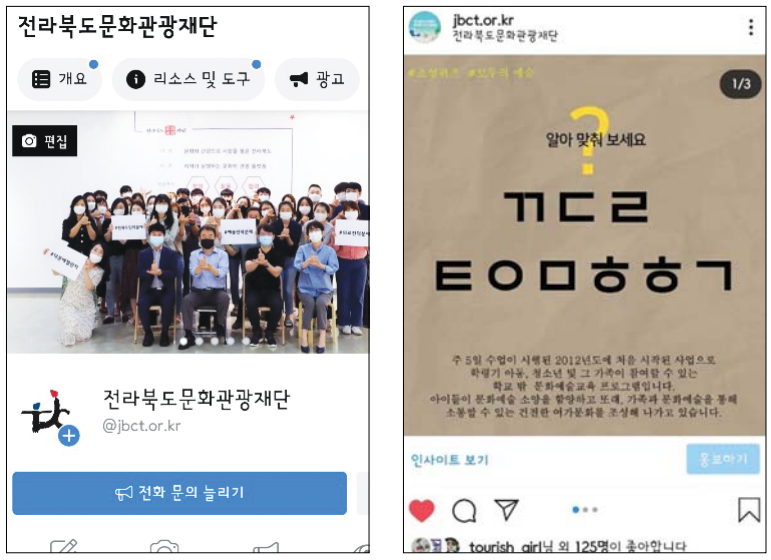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은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총 5개다.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 수가 6,5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블로그도 6만 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재단은 온라인 채널 이용객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34명의 참여자 중 여성 고객(56.2%)과 30~40대(67.1%)가 주 이용객이고, 홈페이지와 SNS를 모두 방문한다는 응답이 63.1%로 나왔다.

그 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용자 연령대와 욕구에 맞춰 SNS 채널 차별화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기존 사업 안내 위주로 채널별 유사한 정보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각 채널의 특성에 맞춰 홍보 방식을 전환·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페이스북은 40대 이상이 주로 이용하는 채널로 특히 도내 예술인·도민이 재단 사업의 정보 습득 경로로 활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정보전달 강화를 핵심목표로 삼았다. 예술인·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도내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 프로그램 소개 등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대면 온라인 행사가 잦아지면서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콘텐츠 생산의 업로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은 20~30대를 중심으로 최근 이용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다. 해시태그를 활용해 지역의 문화예술관광을 보다 유쾌하고 쉽게 전달하는 유연한 방식이 필요하다.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홍보 채널은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인스타그램·유튜브 등 총 5개다. 홈페이지 누적 방문객 수가 6,50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블로그도 6만명 정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사진은 재단 페이스북(사진 왼쪽), 인스타그램(오른쪽) 캡쳐.

다.

#모두의예술 #모두의전북 #모두의재단 키워드로 지역 문화예술관광의 플랫폼인 재단의 문화예술현장을 담아냈고, 재단 내 소소한 이야기 #JBCT_사(社)생활을 통해 고객과의 소통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재단과 지역의 문화관광 소식을 재미있게 풀어보는 #초성퀴즈는 인스타그램 조회 수가 많은 코너로 인기몰이가 한창이다.

블로그는 취미생활, 지역 정보 등 관심사가 뚜렷한 고객이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 정보를 제공하는 카드 뉴스 제작과 이모티콘 등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재단 블로그가 네이버 우리 동네로 연동·소개되면서 블로그 방문객 수가 2.7배가량 증가(5월/1,935명→6월/5,319명)하는 등의 실적이 돋보인다.

유튜브는 언택트 시대로 변화하는 요즘, 1인 크리에이터, 개인 방송 VJ 활동 등 가장 주목받는 채널이다. 현재, 재단에서도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유튜브를 운영 중이며, 각 사업 특성에 맞게 '전북상설공연', '청춘마이크 전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 분야에서도 국내외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사업'을 기획하는 등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재단은 전북관광브랜드공연 '홍도 1589'의 무대 뒷모습을 담은 웹드라마를 제작해 11월 중 유튜브 채널을 통해 방영할 계획이다.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 노력

재단은 올해 고객의 욕구를 반영하고 개선하기 위해 '2020년도 고객만족경영 추진 계획'을 세우고, 지난 4월부터 '고객의 소리'를 운영했다. 기존의 이메일 방식에서 질의응답(댓글 답변) 방식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연동해 개편했으며, '재단에 바란다'와 'FAQ'를 새롭게 개설했다.

'재단에 바란다'는 재단에 궁금한 사항을 담당자로부터 신속하게 답변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로써 비밀글 설정을 통해 고객의 정보를 보호하고 답변은 7일 이내로 이뤄진다. 고객이 지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향후 진행하는 성과공유회, 사업설명회 등에 홍보할 예정이다.

'FAQ(자주묻는말)'는 재단의 공모사업, 대관, 홍보 등 고객이 자주 묻는 말과 답을 사전에 정리해 놓은 내용으로 홈페이지와 블로그에 게시해 여러 번 질문하지 않고, 쉽게 재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38개 정도를 등록했으며,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화한 내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다.

트렌드 반영과 정보 사각지대를 고려한 홍보의 균형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 5개 채널을 운영하는 곳은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을 비롯해 전국 17개 광역재단 중 3곳(서울·경기문화재단)에 불과하다.

이렇듯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이 시대 트렌드를 반영해 홍보방식을 확대한 것도 실적이긴 하나 여전히 정보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군·마을 단위, 고령층 지역민들을 고려한 방식도 고민 중이다.

이기전 대표이사는 "재단 홍보 채널을 통해 도민들이 재단이 하는 사업들을 면면히 들여다보고 관심 있게 봐주면 좋겠다."며, "일방적으로 재단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술가,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온라인 소통 창구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사진 왼쪽부터)김나영, 정윤형, 박애리.

이번주, 국악으로 '판을 깔자'

국립민속국악원, '판놀음' 3주차
김나영·정윤형 명창 등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제2회 대한민국 판놀음 3주차 공연을 11일부터 14일까지 펼친다.

이번 공연에서는 창극 경성스케이터, 내 이름은 사방지를 만나고, 완창 판소리를 감상하는 소리판에서는 김나영의 심청가, 정윤형의 적벽가를 만난다.

11일 저녁 7시 별별창극은 '경성스케이터'로, 1936년 독일 동계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에 참가한 조선인 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딸의 보청기를 사주기 위해 차별, 멸시와 싸우며 레이스를 펼치는 주인공 '달진'의 이야기이다.

14일 저녁 7시 별별창극은 제이유(JU)창극발전소의 '내 이름은 사방지'로, 조선왕조실록 세조13년의 기록을 바탕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사람들과 다름이 틀림이 되는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사방지'의 인생을 다룬 작품이다.

판소리 완창 공연이 펼쳐지는 소리판의 12일 오후 3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김나영의 '심청가'를 들려준다.

이태백(목원대학교 교수)와 임현빈(남원시립국악단 수석단원)이 고수로 참여한다.

13일 오후 3시에는 전주대사습놀이 판소리 일반부 장원과 한국음악협회 한국음악상 젊은 음악가상을 수상하고 국립부산국악원 성악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형의 "적벽가"를 들을 수 있고, 고수는 이우성(서울시무형문화재 제25호)과 윤승환(서울시무형문화재 제25호 판소리고법 이수자)이 참여한다.

관람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해 한 칸 띄어앉기로 운영되며, 선착순 예약자에 한하여 입장할 수 있어 예약은 필수이며, 국립민속국악원 유튜브 채널에서 온라인으로 생중계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http://namwon.gugak.go.kr),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19일 김제시립합창단 정기연주회

제19회 김제시립합창단(단장 강해원 부시장) 정기연주회가 오는 19일 오후 7시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라는 부제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열린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백동현 지휘, 박용순 반주로 유난히 힘들었던 한 해를 보내며 '미제레제메이, 데우스(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성가곡 참회의 노래를 시작으로 밝고 희망찬 세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담아 부르는 라이온 킹 OST '써클 오브 라이프(Circle of Life)'까지 이야기를 담은 듯한 구성으로 알차게 준비하였다.

샹송의 대표격인 에디트 피아프의 '사랑의 찬가', 영화 졸업의 OST로 유명한 사이먼&가펑클의 '스카보로우 페어(Scarborough Fair)' 등 시민들과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곡했으며, 특별 출연하는 가수 서제이 역시 '비와 당신', '안동역에서' 등 익숙하고 친숙한 음악으로 위로와 기쁨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여파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시민 안전을 도모할 예정이며 예매는 10일부터다.

/김제=곽노태 기자

포스트 코로나 대응 지속가능 경영체계 구축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발전전략 포럼
민주시민 교육 등 선도적 역할 개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
상생전략으로 지역여성발전 견인
거버넌스 구축·운용 등이 제안돼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윤애)는 지난 6일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발전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해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센터는 이번 포럼을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요구증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 센터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신기현 교수(전북대학교)는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현황 분석을 통해 강점과 장점을 이용,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양성평등이라는 정체성을 살리기 위한 사업확대와 예산확보의 필요성, 비대면 인프라 구축을 통한 네트워크 활성화 등을 강조하였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이러한 영역을 중점으로 센터 중점사업의 변화를 시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국주영은 의원(전북도의회) ▲이수인 소장(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김경희 회장(전북도 여성단체협의회) ▲김성숙 이사(전북도 여성단체연합) ▲김미진 차장(전북도민일보)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여성인권과 여성정치역량 강화, 성인지 감수성 향상, 민주시민 교육 등 여성의 선도적 역할을 개발하기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 운영의 필요성과 여성기관, 단체가 협조하는 상생전략으로 지역여성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 구축과 운용이 제안됐다.

또한, 센터가 일상에서 디지털사각지대에 있는 여성의 삶을 돌볼 수 있는 중심이 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센터가 가지는 공동체과 공공성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여성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운영으로 여성의 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애 센터장은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큰 혼란과 충격을 받고 있다"면서 "센터 발전전략 포럼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향후 지역 여성발전의 거버넌스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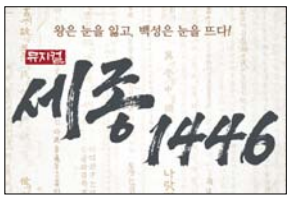
/장은성 기자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의 이야기… 뮤지컬 '세종 1446' 13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군산예술의전당이 여주세종문화재단과의 공동기획 작품 유치를 통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칭송받는 세종대왕을 다룬 창작 뮤지컬 '세종 1446'을 오는 13일과 14일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 무대에 올린다.

뮤지컬 '세종 1446'은 지난 2018년도 여주세종문화재단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왕이 될 수 없었던 충녕(세종대왕)이 왕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한글 창제 당시 고뇌와 아픔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종대왕'에 대한 이야기를 펼쳐내는 작품이다.

특히 세종의 인간적인 면모와 한국적인 선율로 풀어낸 노랫말, 화려한 무술과 의상이 관객들의 오감을 만족 시킬 수 있는 뮤지컬이다.



이 번 군산 공연에는 한글 창제라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애민군주 '세종대왕'역에 정상윤과 그의 아버지 '태종'역에는 남경주, 김주호가 함께 하며 세종과 대립하는 가상의 인물인 '전해운'역에는 이준혁이 출연한다.

/군산=남현봉 기자